



장재선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과장

스티로폴 재활용 동향 및 전망

금년부터 정부는 제품 및 포장재 생산자의 재활용책임제를 도입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2년 2월 4일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재질, 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포장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과 포장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그 제품 또는 포장재 폐기물을 재활용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스티로폴 등 18개 품목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환경부와 재활용단체, 전문가, 민간단체가 수십 차례의 접촉과 의견수렴을 통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개선 보완해야 할 점도 있지만 이 제도는 독일과 영국 등 유럽 15개국과 일본, 대만 등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컵라면 용기나 스티로폼 식품포장용기(PSP)

는 그동안 분리배출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금년부터 수거 대상목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생산자에 의해 의무적으로 재활용되면 매립 및 소각 대상량이 줄어들어 환경보호에 일조함은 물론 폐기물 처리에 따르던 고충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품목에 포함된 스티로폴(EPS)은 1996년 분리수거제도 품목으로 지정되어 8년째를 맞이 하고 있으며 그간 페스티로폴 재활용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는 더욱 확대되어 스티로폴 재활용에 대한 인식도 정착단계에 이르렀다. 이는 분리수거 이전 26%에 머물던 스티로폴 재활용률이 2002년 55%의 높은 재활용 목표률을 보이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스티로폴의 일종인 컵라면, 일회용 도시락, 과일류 난좌 등으로 사용되는 스티로폼(PSP) 용기는 스티로폴 용기보다 발포비율이 적어 사용후 재활용 측면에서 깨끗이 분리배출된 후 양질의 재활용 자원이 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물질 혼입 등을 우려하여 분리수거 대상에서 포함시키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사항으로 남아 있었다.

다행히 '99년 9월부터 일부 지자체(서울시 양

(표 1) 포장재 재활용 의무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등법시행령 개정령)

| 업종 | 재활용 의무대상 | 규모 |
|---------------------------|--|---|
| 음식료품류, 의약품류 | EPS, PSP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연간매출 10억원 또는 수입액 3억원 이상 사업자 |
| 농수축산물 | EPS, PSP 포장재를 이용한 농수축 산물(상표부착제품) 출하 및 수입, 판매업자 | |
| 도시락용기, 받침접시 가전완충재를 사용한 | PSP포장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발포합성수지(EPS, EPP, EPE)를 완충 포장재로 | |
| 전자제품 | 한 전자제품 제조, 수입업자 | |
| 농수축산물 상자 | EPS 포장상자 제조업자 | |

천구)와 소비자단체 및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컵 라면용기나 1회용 도시락 등 식품포장용기에 대해서도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성공을 계기로 지난 해까지 22개 지자체에서 스티로폴과 함께 스티로폼(PSP)도 처리 가능한 감용기로 교체하고 수거 및 재활용 하고 있다.

그간 협회는 스티로폴 원료 제조 및 포장재 가공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가전제조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그리고 재활용업체와 협력하여 스티로폴 재활용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

따라서 현 체제를 기반으로 신규 재활용 의무자인 컵라면 제조업체, PSP 식품포장용기 제조업체 등과 연대하여 재활용공제조합을 인가 받아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한다.

스티로폴 재생원료의 종류는 재생수지용 잉고트(일관 작업시 펠릿 포함), 섬유코팅제, 경량콘크리트플 제품 등으로 하되, 아직 회수재활용체제가 미흡한 PSP 포장재는 당분간 고휘연료방법도 재활용목표량의 50% 이내에서 인정할 예

정이다.

위탁 재활용자는 스티로폴 감용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와 대형유통점 그리고 위 재생원료 생산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재활용자의 시설 능력 및 재생원료 생산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을 맺고 연간 재활용 실적에 따라 적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협회는 재활용비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원료 및 최종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감용기술의 개발 보급과 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한 홍보에 협조하며, 재활용사업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스티로폴의 올바른 이해와 재활용 홍보 등 기본적인 사업은 스티로폴 원료업체의 협조를 받아 비수익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소비자단체, 환경단체와 연대한 스티로폴 분리수거 홍보, 재활용제품의 수요 확대, 국제협력을 통한 재활용기술 정보의 보급 등이 있다. [K]